

고대 이집트 관식에 관한 고찰

A study of Crown ornament of Ancient Egypt

박 옥 련 · 여 상 미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Park, Ok Lyun · Yeo, Sang Mee
Dept. of Living Science, Kyung Sung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symbolic of Ancient Egyptian Crown orna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Ancient Egyptians expressed the authority of king and nature worship to the crown ornament. The volume and scale of shape symbolized the authority of king and the nature worship. The brilliant and plentiful of colors symbolized the strongly authority of king. The numbers of patterns symbolized the authority of king and the nature worship.

Key words : authority, nature worship, eternal life, symbol of form

I. 서론

고대 이집트는 장대한 문화를 최초로 쌓아올린 국가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투탕카멘 왕조에 대한 부장품은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H. 카나본경에 의해 발견되어 고대 이집트 유적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궁중문화의 찬란함을 알 수 있다(키릴알드레드, 1998).

이와 같은 부장품들은 이집트인들의 종교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사후생활이란 죽음과 함께 영혼이 육체로 되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는다고 믿어 그 수단으로 미라 제작을 하였다. 그리하여 파라오가 부활

하기를 바라며 피라미드에 많은 부장품들을 안치하였다(보브브라이어, 1999). 그러므로 부장품들을 통하여 이집트인들의 생활상과 의식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복식에 대한 연구도 행하여졌다.

이집트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홍숙(1972)의 투탕카멘 왕조를 중심으로 이집트 복식에 관한 연구와 최해주(1982)의 이집트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의 고찰 등이 있다.

이집트 복식은 파라오가 신의 대리자라는 절대적 숭배의 종교관을 바탕으로 하여 그 형태가 특징 지워졌고(정홍숙, 1997) 여러 상징적 요소들이 형상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관식은 인간의 신체중 맨 위를 장식하는 부분으로 파라오의 권위를 더욱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의 일부인 관식이 왕의 권위 및 시대적 배경에 따라 조형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 Yeo, Sang Mee
Tel. 011-876-1226
E-mail : ysm1225@kornet.net

연구방법은 문헌 및 선행논문을 통하여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관의 형태는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 ·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 런던 대영박물관 · 베를린 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된 유물과 기록을 통해

여 총 40여 점의 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이집트를 고왕국 · 중왕국 · 신왕국으로 분류하여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시대별 관을 살펴 본 후 관에 나타난 조형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1〉 이집트관식의 종류

시대	분류	왕 조	관	출 처
구왕국		제 3왕조	제세르왕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 4왕조	멘카우리왕과 왕비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 4왕조	라호테프와 노프레트왕비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 4왕조	카프리카왕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 4왕조	멘카우리왕과 여신군상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중왕국		제 5왕조	우세르카프왕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1왕조	멘투호테프왕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1왕조	멘투호테프3세의 머리	런던대영박물관
		제12왕조	아멘헤트 3세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2왕조	왕녀 시트히토르유네트의 관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신왕국		제17왕조	임요데후 왕의 관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아몬신 앞에 선 투트메스 3세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아시아인을 토벌하는 투탕카멘왕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왕의 머리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투트메스 3세의 머리	런던대영박물관
		제18왕조	투트메스 3세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아테프관을 쓴 투트메스 3세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투트메스 3세의 모후 이시스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공물쟁반을 받쳐든 아멘헤테프 2세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아멘헤테프 4세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공물 쟁반을 받쳐 든 이크나톤 왕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아몬신을 예배하는 왕의 일가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이크나톤왕과 네페르티티왕비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이크나톤왕 일가족의 정다운 모습	베를린국립박물관
		제18왕조	네페르티티왕비 흉상	베를린국립박물관
		제18왕조	쇠곤봉과 지팡이를 든 투탕카멘 왕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전투관을 쓴 투탕카멘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제18왕조	투탕카멘왕의 황금마스크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투탕카멘왕의 마네킨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왕의 관대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투탕카멘왕의 둘째 관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투탕카멘왕의 제3의 관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작살을 던지려는 투탕카멘왕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하렘 장면이 그려진 재물케 뚜껑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왕부처의 조상을 간직하는 껌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8왕조	투탕카멘왕과 왕비가 그려진 옥좌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9왕조	람세스 2세 조상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9왕조	람세스 2세 왕녀의 흉상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19왕조	람세스 2세부인	카이로이집트박물관	
	제21왕조	왕비 마이트카라의 관뚜껑	카이로이집트박물관	

II. 이론적 배경

이집트의 역사는 왕에 의해 통치된 강대한 중앙 집권 국가로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을 주변으로 상·하로 흩어져 살던 것이 한사람에 의해 통합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는 상이집트의 지도자인 나르메르(이집트·아프리카, 1983) 30왕조에 이르는 왕조시대의 첫 왕조를 수립하였으며 수도는 상·하이집트의 중간 지점인 멤피스에 건설하였다. 나르메르를 시초로 하여 400년에 걸쳐 왕들은 이곳에서 통치를 하였고 근교에 사후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으며, 상·하로 나뉘었던 이집트를 통할하였다. 이러한 이집트 역사는 고왕국·중왕국·신왕국 세 시대로 구분되며(조재호, 1974), 관식을 형성하는 데는 정치적·종교적배경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병주 외, 1997).

고왕국시대는 3왕조의 발흥과 함께 거대한 피라미드가 차례로 건조되었으며 4왕조는 이집트 왕국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였으며, 삶인 동시에 신이기도 했던 왕과 그의 왕권이 절대적이었던 시기였다. 고왕국은 5왕조 이전까지는 왕은 살아 있는 신이었고 다른 신들과 다른없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존재였으나 5왕조에서는 태양신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최고 제사장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크라프트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중왕국시대는 테베의 왕자 멘투호텝 2세가 오랜 고난과 투쟁 끝에 이룩한 상·하이집트의 재통일로 모든 계층의 이집트인들에게 향상된 삶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동방 시리아로부터 침입한 힉소스족에 의해 정복되어져(라이프인간세계사) 고왕국에 비해 신성왕위의 효력은 매우 미약해 졌으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과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동방의 영향이 복식의 유형뿐 아니라 염색법, 직조법, 세공기술 등(정홍숙, 1997)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관식에도 동방에서 가지고 온 화려한 색채의 보석이 장식되어졌다.

신왕국시대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힉소스들 국외로 축출하였으며 정치권력 또한 정점에 달하여 제국의 융성이 달한 시기이다. 신왕국시대에 누

렸던 영화는 '왕묘의 골짜기'에서 출토된(최몽룡, 1991) 화려한 부장품들을 통하여 그 규모와 호화로운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며 이 시대의 관도 화려하게 발전하여 권력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이집트인의 종교는 생활 전반에 침투되어 인간 생활과 자연의 일체는 신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고왕국 시대 이집트의 종교는 소박한 다신교에서 유일신교의 초기 형태로 발전하다가 다신교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집트인은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신들과 관련된 동물을 신전에서 사육하였으며, 동물 외에 자연현상도 경외하여 그 중 가장 높이 떠받든 것은 태양으로, 생명이 태양에 의존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와 같은 동물이나 자연에 대한 숭배는 자연환경에 지배되던 원시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로 인간이 자각함에 따라 신들은 동물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변모해 가는데 이집트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였다(라이프인간세계사). 이러한 다신교 신앙은 주위의 상징적 자연물로 조형화 되어 관식에 사용되었다.

III. 시대별 관식

1. 고왕국시대 관식

이집트의 고왕국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를 지녀 최고 제사장인 파라오들이 권좌에 앉기가 무섭게 자신의 피라미드를 계획하고 건설하였다. 이 시대의 관은 왕만이 쓸 수 있는 크라프트와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백색의 관이 나타난다.

3왕조의 제세르는 최초로 피라미드를 건설한 왕으로 그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석조 건축물로 파라오의 절대권력과 조직화된 국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제세르왕이 쓰고 있는 관의 형태를 살펴보면<그림 1>, 크라프트를 쓰고 있는데 이 형태는 아랫부분이 뾰족한 삼각형으로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 절대적인 권력의 초기형태로 보인다.

4왕조는 이집트왕국이 정점에 달한 시기로 파라오의 왕권이 절대적이었는데, 멘카우라왕이 쓰고



〈그림 1〉 제세르왕
(이집트박물관 소장)



〈그림 2〉 멘카우라와 여신군상
(이집트박물관 소장)



〈그림 3〉 멘투호테프 왕
(이집트박물관 소장)

있는 관은〈그림 2〉 구근과 비슷한 형태의 높은 모양의 백색의 관으로 상나일강의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의 관으로 멘카우라왕이 두 여신과 함께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파라오가 신의 대리자라는 권위를 느낄 수 있다. 4왕조의 노프레트왕자비가 두르고 있는 밴드형태인 코로넷은(이집트박물관소장) 은제에 적색의 화문과 연두색의 식물문이 새겨져 있다. 은제를 쓴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은이 금보다 귀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이 고왕국시대의 관은 왕을 상징하는 크라프트가 크지 않은 두건모양의 단순한 형태이며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백색의 관이 나타나며, 왕비의 관은 화문을 새긴 코로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왕국시대 초기에는 파라오의 왕권이 절대적이었던 시기로 왕이 신과 함께 서있는 다든지 관의 높이로 왕권을 나타내어 신들과 대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왕국시대 관식

이집트의 중왕국시대는 파라오의 절대권력이 약화되다가 이집트 왕국의 권위를 회복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크라프트의 형태가 고왕

국시대에 비해 크고 넓어졌으며 관에 나타나는 뱀머리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왕국시대의 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11왕조의 멘투호테프왕이 쓰고 있는 관은〈그림 3〉 하이집트 왕들이 쓰던 붉은 관으로 형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부분은 통형(crown)으로 되어 있으며 위 부분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원통형이 머리 뒤쪽으로 붙어 있다. 높이가 얼굴 길이 3배 정도로 높아 관을 귀부분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집트의 상징인 독수리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특별한 문양도 나타나 있지 않다. 검은색의 피부와 흰색의 복식, 붉은 색의 관이 서로 대비되어 강렬하게 느껴진다.

12왕조의 아멘헴헤트 3세가 쓰고 있는 관의 형태는(이집트박물관소장) 크라프트의 끝이 고왕국시대(그림 1 참조)와는 다르게 하단이 삼각형이 아닌 완만한 곡선을 이룬 큰 드림형태로 양쪽 가슴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마 중앙에는 뱀머리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왕비의 관을 살펴보면 시트하트르유네트의 관은(이집트박물관소장) 전체 모양이 금판으로 된 둥근 관대이다. 위로 솟아있는 깃털과 아래로 세개의 깃털장식이 되어 있으며 관의 정면에는 뱀머리가 달려있는데 금을 바탕으로 머리는 라피스 라즈리, 눈은 흑요석으로 만들고 무늬모양

은 금사로 두르고 있다. 뱀머리의 전면에는 홍옥, 아마조나이트, 라피스 라즈리 등을 박아 놓았으며 무늬는 한 줄의 기하학무늬가 몸통 중앙에 간절하게 새겨져 있고 그 둘레에 위쪽은 화문모양의 무늬, 아래쪽은 세로줄의 기하학무늬가 그려져 있다. 관 둘레에 달아 둔 로제트는 전체가 15개로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와 같이 중왕국시대의 관식은 고왕국시대의 백관뿐만 아니라 적관도 나타나며 크라프트가 좀더 모양을 갖춘 형태로 나타나 왕권을 더욱 강조하며 뱀머리가 뚜렷하게 관에 장식되었다. 왕녀가 쓴 관은 고왕국시대보다는 색채와 보석을 많이 사용하여 더 화려하며 장식적이다. 또한 왕들에게만 나타났던 뱀머리를 왕녀의 관에도 장식하였다.

따라서 중왕국시대는 고왕국시대 후기에 쇠퇴했던 왕권이 회복되면서 관에 문양을 장식하여 왕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고자 하였고 또한 동방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보석으로 화려한 색채를 나타내었다.

3. 신왕국시대 관식

이집트의 신왕국시대는 히소스를 추방하고 고왕국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더욱 확장시켰다. 투트

모스 1세의 딸이자 투트모스 2세의 정처였던 하트셉수트는 왕권과 함께 신권마저 차지하고 상·하이집트의 주권을 의미하는 이중의 관(pshent)을 최초로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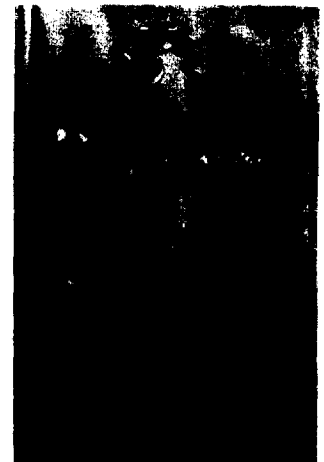
18왕조의 투트메스 3세는 왕위에 오른 뒤 몇 년 동안 그의 백모였던 하트셉수트에게 조종당하기도 하였으나 뛰어난 통치자였다. 그가 쓰고 있는 관을 살펴보면<그림 4> 위 부분은 끝이 구형으로 된 상이집트왕의 백관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끝이 벌어진 하이집트왕의 적관으로 된 형태이다. 이처럼 상·하이집트왕의 이중관을 착용하여 통일 이집트의 왕임을 나타내고 있다. 적관 부분에 있는 뱀머리는 그 형체가 입체감이 있으며 몸부분이 S자 모양을 그리며 꼬리부분은 활기 있게 위를 향하고 있어 큰 힘을 지니고 있는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은 뱀머리만 나타났는데 이 관은 뱀의 형상이 다 보여 다른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18왕조부터 왕의 권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뱀의 형상을 크고 뚜렷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상이집트의 백관부분은 고왕국시대(그림 2 참조)보다 높지는 않다. 18왕조의 네페르티티 왕비가 쓰고 있는 커다란 통모양의 관(crown)은(베를린국립박물관 소장) 위가 평평한 검은 색의 관에 금과 녹색 빛이 나는 아마조나



<그림 4> 투트메스 3세
(런던 대영박물관 소장)



<그림 5> 투탕카멘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그림 6> 왕의 관대
(이집트박물관 소장)

이트와 붉은 빛의 홍옥 등 여러 보석들이 띠로 되어 둘러져 있다. 중앙에는 뱀머리가 새겨져 있는데 몸통의 두께가 얇으며 꼬리부분이 관위로 넘어가 있다. 관의 형태와 균형이 간결하면서 미적인 감각을 이루고 있다.

투탕카멘왕이 쓴 관을 살펴보면<그림 5> 전투관 형태의 관으로 다른 모양의 장식이 뒤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앞부분의 관에는 뱀머리가 달렸던 흔적이 보이며 관 전체가 동그란 무늬로 새겨져 있어 형태뿐만 아니라 무늬까지 독특하다. 투탕카멘왕의 황금마스크에서 보여지는 관을 살펴보면(이집트박물관 소장) 이 마스크는 왕의 유태 머리에 씌워진 것으로 위엄 있는 모습으로 통일이집트의 지배자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평상시 착용하는 황금색과 청색 줄무늬가 반복된 크라프트에 상이집트의 상징인 뱀머리와 하이집트의 상징인 독수리가 있다. 관장식에 뱀과 독수리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하이집트의 주권 모두를 의미하며 꼭 다문 독수리의 부리에서 왕의 위엄과 경건함이 느껴진다. 이러한 장식은 투탕카멘 왕조에서 처음 보여지는 것으로 신왕국시대의 융성함과 더불어 파라오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8왕조 투탕카멘 왕이 쓰던 상징적인 관은<그림 6> 가느다란 띠 모양을 한 금관 중앙에 반투명의 홍옥수로 된 원판을 연

속하여 상감하고 그 안에 금으로 만든 작은 동그라미를 넣고 상양를 길고 연한 청색유리로 상감한 것이 두르고 있다. 관의 본체 뒤쪽에는 같은 모양의 네 줄의 금 리본이 방사상태로 늘어져 있고, 그 바깥쪽에는 줄을 타고 내려온 두 마리의 뱀이 머리를 쳐든 채 달려 있다. 투탕카멘 옥좌의 등울 기대는 부분을 살펴보면<그림 7> 왕이 쓰고 있는 관의 형태는 먼저 사각의 무늬가 반복되어 있으며 그 끝에 뱀머리가 달려 있는 띠모양의 관과 뱀머리가 원을 그리듯이 둘러져있는 관위로 태양을 이고 파피루스의 다발과 어우러진 관(헴헤메트관)을 쓰고 있다. 왕비도 역시 뱀머리가 원을 그리듯이 둘러져 있는 위가 평평한 관에 태양을 싸고 있는 깃털무늬의 관이 올려져 있다. 깃털 무늬는 붉은 색과 푸른색으로 V자를 그리며 2종(縱)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태양이 있다.

람세스 2세의 왕녀 네페르타리의 관을 살펴보면<그림 8> 아랫부분은 뱀머리 장식과 독수리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 위로 평평한 관이 있고 태양이 새겨진 높은 깃털 장식이 있다. 이 관의 형태는 19왕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1왕조의 왕비 마아트카라의 관(冠) 두경에 나타난 관(이집트박물관 소장)을 살펴보면 금과 각종 색채로 채색되어 눈부시게 화려하며 가발 위에 얼굴



<그림 7> 황금의 의자
(이집트박물관 소장)



<그림 8> 람세스 2세 왕녀
(이집트박물관 소장)

을 감싸듯 날개를 펼친 금제 투조의 독수리 모양의 관이 그려져 있는데 날개의 깃털 모양은 2단으로 사선과 붉은 색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양쪽 날개 끝쪽에는 백관을 쓴 뱀머리가 보여지는데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위로 뱀머리가 원을 그리듯이 새겨져 있는 코로넷이 씌워졌는데 여기에 있는 뱀머리 부분은 다른 관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옆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이 신왕국시대의 관식은 상·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이중관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부강한 나라의 권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18왕조 때 절정기에 달하여 뱀머리와 독수리, 태양 그리고 파피루스 등으로 거대하게 장식되었으며 뱀머리의 형상도 고왕국·중왕국시대에 비해 크게 새겨졌다. 또한 여러 가지 보석으로 관식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어느 시대보다도 왕의 권위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왕의 관뿐만 아니라 왕비의 관에서도 뱀머리장식이나 독수리·태양·파피루스·로터스·깃털 등이 장식되었으며 여러 가지 화려한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IV. 이집트 관식에 대한 조형성 분석

이집트는 정치적 특성과 종교관의 변화 등이 이집트왕들의 의식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가 관식에 나타났다. 이집트의 관식에 나타난 조형성을 살펴본 결과 변화가 있는 형태·색채·문양으로 나누어 고찰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1>에 나타난 결과로 관식의 조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형태미

이집트의 관식에 나타난 형태를 살펴보면 왕이 썼던 관은 고왕국과 중왕국시대에는 두건 모양, 구근모양, 통형과 같은 모양으로 관의 형태는 단순하게 나타났다. 신왕국시대의 이중관도 백관과 적관의 단순한 모양을 합쳐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며, 푸른 관도 단순한 타원형의 모양을 나타낸 형태이다. 그러나 신왕국시대에는 많은 수의 뱀머리와 태양, 파피루스가 함께 어우러진 관의 형태가 나타나 이전시대와는 달리 장식이 많아져 부피가 커지고 규모도 거대해졌다. 또한 깃털모양의 긴 관도 나타났다. 왕비의 관 또한 고왕국·중왕국시대에는 간결한 코로넷형태의 관만 나타났으나 신왕국시대에는 코로넷 형태뿐만 아니라 왕의 관과 마찬가지로 통형에 위로 높이 솟은 깃털모양의 관형태와 성사·독수리·태양·파피루스가 장식된 험헤메트관의 형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집트 관의 형태는 왕권이 강화되지 않은 때에는 형태와 장식이 간단하며 단순한 형태에서 절대왕권이 이루어진 부흥한 시대에는 왕권

<표 2> 이집트의 관식의 조형성

시대	고 왕 국	중 왕 국	신 왕 국
조형성			
형 태	크라프트 타원형의 백관 코로넷	크라프트 백관 적관 금제의 둥근관대	크라프트·이중관·푸른관·험헤메트관·코로넷·크라운
색 채	백색·은색	백색·적색·금색	백색·적색·황금색·푸른색·검은색
문 양	줄무늬 화문 뱀머리	줄무늬 뱀머리 로제트 깃털	뱀머리·태양·깃털·줄무늬·직사각형·독수리·파피루스·화문

이 강화되면서 왕을 더욱 신성시하며 그들의 사후 세계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인 상징물이 관에 많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형태를 보였다.

2. 색채미

이집트의 관식에 나타난 색채를 살펴보면 왕은 고왕국시대에는 흰색, 중왕국시대에는 흰색과 붉은색을 썼으며, 신왕국시대에는 푸른색과 황금색, 검은색이 더하여졌다.

이집트는 사막에 내리찍는 태양의 강렬함, 나일강의 주기적범람에 따른 다양한 자연환경의 색채,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 내는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푸른색은 아시아의 식물인 쪽풀에서 얻었으며 황색은 크로커스에서 얻었고 적색은 홍해의 근해에 있는 비소 유화물의 광상에서 얻어 관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집트 관의 색채중 상·하이집트의 관인 백색 관과 적색 관은 고대인들의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고대인들은 동서남북의 4방위를 색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도 왕은 자기가 상이집트 왕국의 통치자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흰색의 왕관을 썼고, 하이집트 왕국에도 자기의 권위가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빨간색의 왕관을 썼다. 또한 관의 색상이 적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집트인들의 민족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네 종류의 민족을 인정하여 적색은 이집트 인종, 황색은 아시아 인종, 백색은 지중해 인종, 흑색은 흑인종을 위한 색채로 적색이 그들 자신의 색채로 여겼기 때문에 적색의 관이 나타났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전쟁이나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왕이 푸른색의 전투관을 썼는데 푸른색은 흥한 눈을 막는 것으로 믿어 액운을 막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금색은 이집트인들이 태양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주된 색채로 사용하였다. 또한 18왕조의 관대에서는 화려한 보석들이 장식되어 아마조나이트의 녹색, 홍옥수의 홍색, 라피스 라즈리의 청색 등이 어느 시대보다도 아름답고 다양한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집트 관의 색채는 이집트인의 4방위에 대한 색채관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색채

를 관식에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미를 나타내었으며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하여 화려한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3. 문양미

이집트의 관식에 나타난 문양을 살펴보면 고왕국시대에는 줄무늬·화문·뱀머리가 나타나며 중왕국시대에는 여기에 타조의 깃털무늬가 더 첨가되며 신왕국시대에는 태양과 독수리·파피루스·화문 등이 나타났다. 관식에 나타난 문양들은 왕과 왕비사이에는 차별이 없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문양 또한 형태·색채와 같이 왕권이 강해질수록 그들이 신의 대리자라는 인식을 이집트인들의 의식세계에 뿌리내려 그들의 권위와 영원한 삶을 나타내었다.

이집트 관에 장식된 문양이 나타내고 있는 상징성을 보면 뱀은 왕권의 상징으로 왕이며 수호신이고 또한 치병과 예언의 능력, 그리고 액운을 막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상징물이다. 태양은 질 때는 죽음과 같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다시 태어나고 삶이 새로워진다고 믿는 토tem적 사상을 이집트인들에게 가지게 하여 왕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뱀과 함께 태양이 새겨졌다. 하이집트의 상징인 로터스는 해뜰 때에 피었다가 해질 때에 지는 속성 때문에 태양숭배사상과 관련되어 재생과 내세의 무량한 생명을 상징하여 관식에 사용되었다. 파피루스는 상이집트의 상징으로 신성한 식물로 간주되었는데 그것은 햇살모양의 꽃이 태양신을 상징하고, 삼각형의 속 모양이 영원성을 상징하여 관에 다발로 장식되었다. 독수리는 상이집트 신의 상징으로 전쟁중의 왕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녀 여왕은 왕이 원정을 나간 동안 독수리 장식의 관을 머리에 쓰고 있기도 하였으며, 또 왕은 신적 존재로 독수리와 같은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과시의 표현으로 장식되었다. 직선은 기하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집트인의 국민성이 가장 잘 반영된 것으로 이는 태양의 햇살, 또는 매일 동에서 서로 일정하게 운행하는 태양의 궤도를 상징하며 삼각형은 나일강 하류 평야인 델타를 상징하는 것으로 크라프트 모양이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왕은 영

원성을 상징하고 있는 줄무늬와 삼각형모양의 크라프트를 썼다. 타조 깃털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색상이 화려하여 주로 여왕의 관장식에 많이 쓰였다.

이와 같이 이집트관에 나타난 문양들은 왕의 권위를 신성시하고 영원한 삶을 지녀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상징이 나타나 있으며 문양의 종류도 나라가 부강하고 왕의 권위가 강대할수록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고대 이집트인은 권위를 존중하며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관식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관식의 조형성을 이루고 있어 이를 시대적 배경에 따라 분석·고찰해 보았다.

첫째, 고대 이집트 관의 형태는 고왕국·중왕국 시대는 관의 형태가 간결하면서 단순한 형태로 크라프트·백관·적관·코로넷이 있었으나 신왕국시대에는 파라오가 신의 대리자로서 왕권이 강화되고 권력이 강해져 관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즉 상이집트관의 백관과 하이집트관의 적관이 함께 형태를 이룬 이중관을 착용함으로써 통일이집트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부피가 커지고 규모가 거대해진 깃털모양의 긴 관과 험메트관도 등장하여 절대적인 왕권을 표현하고 내세에 대한 기원이 더욱 강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고대 이집트 관에 나타난 색채는 사방위에 대한 색채관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 상이집트관은 백색, 하이집트관은 적색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태양을 숭배하여 금색을 주된 색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액운을 막는 푸른 색과 보석이 지닌 천연의 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값비싼 보석과 순금의 장식들을 이용하여 구성된 풍부한 색채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왕권을 나타내었으며 그리하여 신왕국시대 관식에 나타난 색채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 가장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고대 이집트 관에 나타난 문양은 왕의 권위와 무한한 생명을 기원하는 것으로 용맹스러운

독수리, 수호신인 뱀, 재생과 내세의 무량한 생명의 상징인 연꽃, 태양과 영원을 상징하는 파피루스 등을 새겼으며 왕권이 강한 때일수록 여러 가지 문양이 함께 장식되어졌다.

고대 이집트 관식에 나타난 형태·색채·문양은 절대적인 왕의 권위와 자연숭배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이집트의 관식을 시대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가 복식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권위, 자연숭배, 영혼불멸, 형태·색채·문양의 상징성

참고 문헌

- 김성근 외(1963), 세계문화사(삼), 을유문화사.
 라이프인간세계사(1979), 고대 이집트,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pp. 12-80.
 문화사교재편찬회(1980), 세계문화사, 형설출판사, pp. 31-36.
 보브브라이어·강미경(1999), 황금파라오 투탕카멘, 세종서적, pp. 26-55.
 세계미술대전집(1993), PRIMITIVE·ANCIENT ART, 동아출판사.
 세계의 박물관 제16권(1985), 이집트박물관, 서울 : 한국일보사.
 세계의 여행 6권(1983), 이집트·아프리카, 마당.
 세계전통문양선집3(1999), 이집트 전통문양, EVA WILSON·EDSIBBETT, JR., 도서출판 아중.
 안경숙·C. W. Ceram(1994),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 대원사.
 이병주 외(1997), 세계문화사, 일조각, pp. 22-26.
 이화용(1993), 이집트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을 응용한 현대의상 디자인 : 투탕카멘 왕조의 문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홍숙(1972), 고대 이집트 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 Tutankhamen왕조를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6호, p. 9.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p. 4-25.
 조재호(1974), 세계문화사, 박영사, pp. 32-33.
 차하순(1981), 서양사총론, 심구당.

최몽룡(1991), 재미있는 고고학 여행, 학연문화사,
pp. 137-139.
최해주(1982), 이집트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0(1), pp. 11-22.
키릴알드레드·신복순(1998), 이집트문명과 예술, 대
원사, pp. 218-234.